2011학년도 수시 논술(인문계 B)

출제의도와 문제 해설

Ⅰ. 2011학년도 논술고사 출제의 기본방향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논술고사는 2010학년도 수시 논술고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출제되었다. 이러한 출제 유형은 2007학년도 통합 논술에 비하여 통합의 정도 및 난이도를 완화시킨 2008학년도 이후의 논술 출제 경향을 잇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의 논술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특별히 감안해서 출제되었다.

첫째,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보정에 적합한 문제로 구성한다.

둘째, 수험생들의 수준 및 응시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한다.

셋째, 평가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채점의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아무리 그 자체로 좋은 문제라 하더라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는 대학 입학 시험 문제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고사 출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유지했다.

(1)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이를 위하여 ①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② 자신의 견해를 정해진 시간 안에 제한된 분량으로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③ 주어진 자료 속의 정보와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창의적 능력을 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2) 고교 내신에 대한 보정 기능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즉, 고교 내신에서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하는 부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통합 교과형 논술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교과목에서 각기 단편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종합적 판단으로 유도하는 방식의 문제를 출제한다.

(3) 이를 위하여 출제팀 내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인문학적 측면과 사회과학적 요소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출제의 소재와 방향, 제시문의 유형 등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문제를 출제토록 한다.

Ⅱ. 주제 및 제시문 해설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논술고사(인문계 B)는 '예측'이라는 공통 주제 하에 다섯 개의 제시문을 선정하고 논제를 설정하였다. 각 제시문은 예측과 관련된 다양한 장르의 문헌에서 발췌되거나 재구성되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예측할 때가 많다. 또한 과학에서는 이 예측이 과학적 설명과 맞물려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인간의 경제활동을 포함한 사회 현상들은 우리의 예측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다. 금번 논술고사는 학생들이 예측에 관한 글을 읽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고력과 독해력의 깊이를 측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제시문은 사회현상들이 예측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하는 글이다. 둘째 제시문은 미래에 대한 예언자의 발언을 담고 있다. 셋째 제시문은 과학에서의 설명과 예측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비교하는 글이다. 넷째 제시문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국가의 쇠락을 예측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다섯째 제시문은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든 가상의 상황을 통해 통계자료를 분석 · 응용하고 통계자료에 나타난 역전 현상을 이해 ·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글이다.

단순한 암기나 기계적인 연습에 의존하지 않고 평상시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독서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사고하는 습관을 가진 수험생들만이 모든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논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논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제자들이 수험생들의 답안에서 기대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읽고 그 논지를 파악하며 전체적으로 중요한 요점을 지적해 내는 것, 그리고 제시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논제에서 요구하는 지침과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내용을 주어진 분량 속에서 적절하게 논술해내는 것이다. 각각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은 상반되는 주장을 서로 비교하거나, 지문에 대한 섬세한 분석을 통해 '예측'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는 복합적 논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은 각 제시문의 논지 및 그 연결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1)은 현대 거시경제학의 새로운 장을 연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을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 재구성한 글이다. 케인즈는 『일반이론』에서 자신이 '고전학파' 경제학이라 불렀던 당

대 주류 경제학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마샬(Alfred Marshall), 피구(Arthur Cecil Pigou) 등이 이끌었던 고전학파 경제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론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의 원인을 현실의 불완전성에서 찾았다는 데에 있다. 반면에 케인즈는 현실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이 발견한 현실의 본질적 특성에 맞게 이론을 수정, 재구성하고자 했다.

케인즈에 따르면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이다. 투자자들이 미래 수익에 대해 기대를 형성하는 이유는 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부터 수년 간 떨어진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추정할 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의 수준은 상당히 초보적이다. 사람들은 예상 수익을 추정할 때 흔히 관행에 의존한다.

인용된 제시문은 케인즈의 『일반이론』 중 장기기대상태를 논하는 제12장에서 주로 발췌한 것이다. 케인즈는 제시문에서 우선 현실이 확정적이고 미래가 예측 가능하다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가정이 근거가 박약하다고 비판한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결정은 그 확률적 기댓값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간의 의사결정은 변덕, 감정, 우연 등의 영향을 받는다. 불확실하고 계산 불가능한 미래에 대처하는 인간의 행동은 종종 세상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판단을 그대로 추종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 현존하는 세평(世評)이 미래 전망의 올바른 요약이라고 가정하고, 새로운 관련 사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행동을 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관행적 판단에 의존하는 사회이다. 하지만 관행적 판단은 그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균형'은 갑자기 붕괴하는 것과 같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쉽다.

제시문(2)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서 두 장면을 발췌한 것이다. 텍스트는 천병희의 번역본(단국대 출판부, 2001년 개정판)을 저본으로 삼았다. 이 극은 아이스퀼로스, 에우리피데스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소포클레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소포클레스는 이 작품에서 신탁에 의해 정해진 운명에 맞서 이를 회피하지 않고 대결하다가 파멸하는 인간의 비극적 운명에 관해 말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소포클레스의 비극은 신의 위대한 의지 실현보다도 자신의 운명에 대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결하는 인간의 모습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2)는 「오이디푸스 왕」의 전반부와 중반부에서 각각 한 장면을 발췌하여 하나로 엮은 것이다. 이 희곡은 테바이의 왕 오이디푸스가 테바이를 덮친 역병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쓰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오이디푸스의 명을 받고 아폴론에게 신탁을 듣고 돌아온 크레온은 테바이 역병의 해결책은 선왕(先王) 라이오스의 살해

범을 찾고 그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오이디푸스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불러 그에게 라이오스의 살해범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진작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테이레시아스는 진실을 밝히기를 피하다가 오이디푸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게 된다. 오이디푸스에게서 모욕을 당한 테이레시아스는 마침내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의 살해자임을 암시하면서, 그가 당할 비참한 운명의 결과에 대해 예언하고 궁전을 떠난다. 제시문의 첫 번째 발췌 장면이 바로 이 대목에 해당한다.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을 듣고 화가 난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처남 크레온을 불러 그가 왕권을 빼기 위해 테이레시아스와 짜고 자신을 라이오스의 살해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며 공박하다가 크레온과 말다툼이 벌어진다. 이를 들은 아내 이오카스테는 오이디푸스를 안심시키기 위해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이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라이오스가 자기 아들의 손에 의해 죽게 될 것이라는 신탁의 예언이 있었지만 결국 도둑들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러나 이오카스테에게서 라이오스가 삼거리에서 살해되었다는 사실, 라이오스의 생김새와 당시 왕이 단 한 대의 마차와 다섯 명의 수행원만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은 오이디푸스는 점점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이 진실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처참한 운명에 대해 두려워하게 된다. 제시문의 두 번째 발췌 장면이 바로 이 대목이다.

이 두 장면들은 신탁에 의해 정해진 운명 앞에서 인간이 제아무리 거부하거나 회피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찌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즉, 이는 신탁에 의해 정해진 인간 운명의 불가피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예언은 과학적 법칙성과는 거리가 멀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예언은 신의 계시에 해당하기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이며 진실로 여겨졌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탁을 인간 삶의 규범적 질서로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하며 살았던 것이다.

제시문 (3)은 『과학적 설명의 측면들』(*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1965)에 나타난 헴펠(Carl G. Hempel)의 과학적 예측에 관한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헴펠의 모형은 1970년대에 과학적 설명과 예측에 관한 표준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졌다. 헴펠은 설명과 예측은 실용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논리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설명과 예측의 대칭성 논제'를 주장하였다. 과학적 설명과 예측은 모두 피설명항이 법칙과 선행조건에 의해 일어나게 마련이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논증에 의해 제시되는 구조를 지녔다는 것이다. 제시문은 이런 구조를 지닌 헴펠의 두 모형, 즉 연역 법칙적 모형과 귀납 통계적 모형을 간명하게 설명하면서 그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적 설명 및 예측에 관한 헴펠의 견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들이 모두 법칙을 필수적인 전제로 포함하는 논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설명과 예측은 모두 피설명항을 법칙 밑에 포섭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헴펠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도 자신의 모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시문에서는 합리적 예측이 과학적 예측과의 관련 하에서 설명되고 있다.

제시문 (4)는 한비(韓非)의 『한비자(韓非子)』와 여불위(呂不韋)의 『여씨춘추(呂氏春秋)』에서 일부를 취해 출제의도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한비(B.C.280−B.C.233)는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이며, 법가(法家) 사상의 집대성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韓)나라의 부국강성을 위해 한왕에게 올린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비자』를 지어 그 울분을 달래고자 했다. 『한비자』에는 전국시대 말기 신흥 지주와 귀족들의 대립 관계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중앙집권적인 봉건 국가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법치(法治) 이론들이 잘 나타나 있다. 여불위(? − B.C.235)는 중국 전국시대의 정치가로, 13년간 진(秦)나라의 재상을 지내면서 천하통일의 기초를 닦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가 휘하의 재사들을 불러모아 편찬한 『여씨춘추』는 초기 도가(道家) 사상을 근간으로 여러 제자백가의 학설을 종합한 것이다. 여불위는 진나라의 안정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당시 전횡과 사치를 일삼던 진왕을 적절히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견해를 『여씨춘추』에서 펼쳐보이고자 했다.

『한비자』에서 발췌된 부분은 <망징(亡徵)>편의 일부이며, '망징'은 나라가 망할 징조란 뜻이다. 이 편에서 한비는 나라의 멸망을 예견할 만한 징조로 마흔일곱 가지를 열거했다. 여기에는 봉건 사회 각 방면에 나타나는 망국의 병리 현상들이 폭넓고 심도 있게 개괄되었으며, 한비는 이로써 역사의 경험을 총괄하는 가운데 봉건 왕조의 붕괴 원인을 짚어보려 했다. 한비는 나라가 망할 징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망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법가의 통치술을 채택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시문은 출제 의도에 맞춰 다음의 『여씨춘추』에 보이는 내용과 관련이 깊은 부분을 골라 간추린 것이다.

『여씨춘추』에서 발췌된 부분은 <선식(先識)>편의 일부이며, '선식'은 미리 안다는 뜻이다. 이 편에서는 하(夏)나라의 종고(終古), 은(殷)나라의 상지(向摯), 진(晉)나라의 도서(屠黍) 등의 예를 들어, 현인들은 충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징조로 보고 그 나라를 떠난다면서 인재등용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도서가 망할 것이라고 내다본 진나라, 중산국, 주나라는 모두 『한비자』에서 말한 '망징'을 보이고 있었다. 그 가운데 진나라와 중산국은 예측한 그대로 멸망한 반면, 주나라는 도서의 예측이 적중한 두 나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병폐를 시정했다.

제시문 (5)는 제시문 (2)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를 토대로 가상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원래 오이디푸스 왕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테바이의 왕이

되는데 여기서는 오이디푸스 왕이 백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형태로 제시문이 설정되었다. 왕은 백성들에게 '수수께끼 1'이나 '수수께끼 2'를 내는데, 수수께끼를 풀기 위하여 백성들은 '방법 A'와 '방법 B' 중 하나를 사용하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제시문에는 총 3개의 표가 있다. 첫 번째 표는 수수께끼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전체 통계를 요약하고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표는 수수께끼 1과 수수께끼 2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각각 요약하고 있다. 각각의 표에는 답을 맞힌 사람들이나 못 맞힌 사람들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각각의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요약되어 있다.

Ⅲ. 논제 해설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논술시험(인문계 B)은 수험생들의 학력수준에 비추어 크게 무리가 없는 주제 및 제시문을 선택하는데 유의하였다. 또 통합논술의 성격에 맞도록 인문학적 접근과 사회과학적 측면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주제와 제시문들을 선택하였고, 특정 상황에 대한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제시문도 채택하였다. 통합적 사고에 대한 이런 강조는 고려대학교가 지난 수년 동안 행해온 논술시험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며, 2010년 5월의 예시문제를 통해 제시한 방향과도 일치한다.

논제 I은 제시문 (1)을 350~400자로 요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요약의 목적은 글의 핵심적인 논지를 파악하여 제한된 분량 안에서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글의 정확한 이해는 좋은 요약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이다. 이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제시문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그 요점들을 모두 포함하는 압축적인 글을 작성해야 한다. 요약문의 분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시문에 사용된 문장이나 어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서는 효과적인 요약이 되기 어렵다. 지정된 분량을 초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글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축적인 개념이나 표현으로 다수의 문장이나 어구들을 대체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요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험생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요약에는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제시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재현(再現)하는 작업은 객관성을 지향한다. 따라서 이 논제에 대해 주관적인 신념이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시문 (1)이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사실이 확정적이고, 미래가 확률적으로 계산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그렇지만 미래는 불확실하며 미래의 전망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확률적 기댓값으로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행동과 행동의 결과 간 시점의 차이가 클수록 더 힘들다. 셋째, 현상의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현상의 영향 변수가 너무 다양하고, 인간의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행동이나 믿음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간의 결정은 비합리적인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 넷째,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행동을 요구받는데 이때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추종하는 '관행적 판단'에 의존한다. '관행적 판단'의 예는 대다수 선호를 추측하여 투표하는 인기투표나 대다수 투자자들의 예상을 추측하여 따라하는 주식투자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하지만 관행적 판단에 기초한 미래 예측은 그 기반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쉽게 변할 수 있다. 안정된 현상의 표면 아래에는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常存)한다. 이상 다섯 가지의 내용을 짜임새 있고 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한 문장으로 작성한 요약문은 이 논제가 요청하는 바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논제 Ⅱ는 제시문 (3)의 논지를 정리하고 이를 준거로 제시문 (1)과 제시문 (3)의 논지가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를 비교·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의 논지 이해 및 요약 능력과 제시문들의 관계를 비교·설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수험생들은 550~650자의 범위 내에서 아래 내용을 충실히 제시하여야 한다.

수험생들은 먼저 제시문 (3)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제시문 (3)은 과학적 예측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과학적 예측이 가능한 것은 인간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어떤 규칙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설명과 예측이 선행조건과 법칙으로 이루어진 설명항에서 피설명항을 추론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모형에 근거하며, 과학적 예측모형은 연역법칙적 방법이나 귀납 통계 법칙적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자연과학뿐 아니라 사회과학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3)에 따르면, 인간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규칙성을 법칙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해 합리적 예측을 할 수 있다.

반면, 제시문 (1)은 미래에 관한 합리적 예측의 어려움과 대안적 예측방법인 관행적 예측을 제시하고 있다. 불확실한 지식, 변수의 다양성, 인간의 불합리성과 같은 요인들은 인간이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이에 따라 인간은 합리적 예측 대신 관행적 판단에 따른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때 미래의 예측은 규칙성 같은 과학적 사실보다는 예상되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지한다. 제시문 (1)은 합리적 미래 예측 모형의 제한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대안으로 선택한 관행적 예측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여러 측면에서 비교될 수 있다. 첫째, 예측가능성과 관

련해서 제시문 (3)은 미래예측의 과학적 모형 수립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사실들의 법칙성 파악을 통해 미래는 예측 가능한 것으로 전제된다. 반면, 제시문 (1)은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래의 변화는 비합리적이고 복잡한 요소들에 의해 초래되기 때문에 예측되기 어렵다. 둘째, 예측의 방법과 관련해서 제시문 (3)은 법칙에 기초한 합리적 예측을 제시한다. 현실의 많은 변화는 자연법칙과 같은 법칙으로 요약될 있고, 전제조건이 같다면 이 법칙은 미래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는 예측 가능하게 된다. 반면, 제시문 (1)에서는 관행적 판단에 따른 예측이 제시된다. 이는 사실들의 법칙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법칙성보다는 그때그때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에 의존한다. 셋째, 엄밀히 말하면 제시문 (3)과 제시문 (1)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두 제시문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시문 (1)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서술하는 반면, 제시문 (3)은 과학적 예측이 어떤 모형에 기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논제 Ⅲ은 제시문 (3)에서 제시한 예측의 모형에 근거하여 미래 예상에 관한 두 종류의 발언에 관해 그 발언이 과학적 예측인지 아닌지를 따져 보고, 그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한계를 따져보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수험생들은 550-650자의 범위 내에서 다음 내용을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먼저 제시문 (3)의 헴펠의 논리 구조를 잘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탁을 전달하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발언과 현실 정치사상가인 도서의 발언의 차이를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히고, 나아가 두 발언이 헴펠이 제시한 예측의 모형에 근거했을 때 어떤 점에서 한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먼저 제시문 (3)에 대해서 수험생들은,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미래에 관해 예측하는데 그 예측은 법칙과 선행조건으로부터 추론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험생들은, 제시문 (2)에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한 예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예측의 모형에 근거하여 이를 비평해야 한다. 제시문 (2)에서 테이레시아스는 여러 예언을 하는데 그중 라이오스 왕의 살해자가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예언이 실현되었다. 테이레시아스의 이런 예언은 아폴론 신에게서 받은 신탁이다. 신탁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게 숙명적으로 실현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에서는, 사례를 통해 예언이 도출되는 과정에서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위의 내용을 바

탕으로 테이레시아스의 발언은 선행조건으로서의 사례와 법칙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학적 예측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제시문 (4)의 도서가 한 예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역시 예측의 모형에 근거하여 이를 비평해야 한다. 도서는 진나라와 중산국에 대하여 각각의 나라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적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 두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 말했는데 결국 두 나라는 도서가 말한 대로 얼마 안 가서 망하였다. 이에 비해 주나라의 왕은 도서의 말을 듣고는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정치적 개혁을 실행하였다. 이렇게 볼 때 도서의 발언은 사례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앞날을 예측한 것으로, 예측이 도출되는 과정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법칙성이 발견되며 앞날을 예측하여 행동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도서의 발언은 선행조건으로서의 사례와 법칙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예측적 논증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수험생들은 테이레시아스의 발언과 도서의 발언이 갖는 공통점과 한계를 밝혀야 한다. 두 발언은 미래에 관한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두 발언 모두 선행조건과 법칙성이 온전히 갖추어진 과학적 예측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논제 Ⅳ는 제시문 (5)에 요약된 표들을 정확히 읽어내어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가)는 이오카스테가 지난 5년 중 어느 시점에 왕에게서 수수께끼 하나를 받았다는 설정에서 시작한다. 이는 이오카스테가 표들에 나타난 통계적 규칙성을 적용받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녀가 '방법 A를 사용하여 답을 맞추었다'는 조건하에 그녀가 두 개의 수수께끼 중 어느 것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묻고 있다.

(나)는 전령1, 전령 2, 메디아가 지난 5년 중 어느 시점에 왕에게서 수수께끼 하나를 받았다는 설정에서 시작한다. 전령들은 왕의 백성이므로 표들에 나타난 통계적 규칙성의 적용을 받지만 메디아는 왕의 백성이 아니므로 표들에 나타난 통계적 규칙성에 구속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설정 하에서 세 사람이 독립적으로 수수께끼를 풀 때 전령 1이 답을 맞힐 가능성과 세 명 중 두 명 이상이 답을 맞힐 가능성을 비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는 표들에 나타난 정답률의 역전에 대한 크레온의 관찰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역전현상은 통계분석에서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는 학생들이 이러한 역전현상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두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하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은지를 묻고 있다.